



[준기획] >> 3면

우리대학 학점포기제 기준 완화

[기획] >> 4면

소형학과 운영의 어려움

[심층] >> 7면

청년 주거 문제

[인물] >> 12면

노중훈 여행작가

반복되는 교과과정 변경... 혼선 속 개선방안은

교육과정 개편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몇몇 학생들의 수강계획에 불이익과 혼선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 교과과정 개편 현황△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문
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5면에서 계속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우리대학 2026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달 21일 우리대학 2026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양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위수여식은 오전 10시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합동으로 열렸으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위수여식은 오후 2시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1,84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설캠에서 학사 795명과 글캠에서 학사 517명이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는 석사 465명과 박사 65명이 학위를 받았다.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 총장)은 양 캠퍼스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강 총장은 축사를 통해 “어제까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며 졸업이 학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질문과 도전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어 “성공은 남이 정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는 시대에도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에 대한 답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함을 당부했다.

강 총장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힘을 ‘외대인의 힘’으로 꼽았다. 또한 먼 길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의 행원자이(行遠自邇)를 언급하며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 총장은 “우리대학을 만나 세계를 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총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취가 곧 우리대학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양 캠퍼스에는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선호배△친지 등이 함께했다. 졸업생들은 캠퍼스 곳곳에서 가족 및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학장 시절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했다.

이나연 기자 12naeyon@hufs.ac.kr

HK+국가전략사업단,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GCIC)와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강준영 우리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단장과 박지완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GCIC) 소장(이하 박 소장)이 지난달 18일 우리대학 교수회관에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은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을 안건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콜로키움(Colloquium)과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연구 성과 공유와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적 소비문화에 대한 초국적·초시대적 해석과 비판’을 주제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강박적 집착과 현대인의 비합리적 소비 패턴 및 소비문화의 원인을 △문화△영양△철학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박 소장의 개회사와 정기웅 HK+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박 소

장이 ‘N. 고골의 <죽은 혼> 다시 보기, 반자본주의적 시선으로, 텍스트 밖에서’를 주제로 기획 특강을 진행했다.

기획 주제 발표에는 △김성수 우리대학 교수△김형주 연세대학교 교수△박성준 한성대학교 교수△이경완 한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고골 텍스트의 △남북적 소비의 양면성△사물에 대한 소외와 사물시학 계보△소비사회에서 낭만의 발생 조건△영화를 통해 본 소비 자본주의의 문화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학문 후속세대 발표에서는 신진 연구자 5인이 러시아와 우리나라 문화 속 △감정의 탐진과 축적△력서리 패션의 소비 가치 생산△『죽은 혼』에 나타난 물질주의 비판과 소비문화의 그림자△페테르부르크의 도시 소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후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종합 논평이 진행됐으며 총평 및 폐회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정윤 기자 13jungyeo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9.16(수) ~ 10.07(수)	2026.11.16(월) ~ 12.07(월)
고사장 발표	2026.10.14(수) 15:00	2026.12.09(수) 15:00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예정	2026.12.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10.30(금) 15:00	2026.12.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11.02(월) ~ 11.06(금)	2026.12.28(월) ~ 12.31(목)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전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대 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논문·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9. 16(수) ~ 10. 7(수)	2026. 11. 16(월) ~ 12. 2(수)
고사장 발표	2026. 10. 14(수) 15:00	2026. 12. 9(수) 15:00
면접전형	2026. 10. 17(토) 10:00 예정	2026. 12. 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15:00	2026. 12. 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11. 2(월) ~ 11.6(금)	2026. 12. 28(월) ~ 12. 31(목)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지원

장학금/원우회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실시간 온라인 중심 수업, 학기별 2회 특강 및 학생 간담회 진행
라. 국가안보전공 『학·군·제휴』 협약에 따라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후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우리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 연속 최고 등급

우리대학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S등급과 자체성과관리 A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와 특성화 전략 추진을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대표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9년 해당 사업 도입 이래 3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평가는 제3주기(2025~2027) 사업의 2차 연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대학은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지원 체계△중도 탈락률 지표 개선△학생 전공 선택권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JA교원과 SG Unit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자유선택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프라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수요에 기반한 학내 자원 재분배 및 공유체계를 강화한 점에서도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 교육 과정 이수체계를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전공탐색 및 수업 적성 지원을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우리대학은 이번 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업비 총 113억 4천만 원을 확보하며 교육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글로벌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학습 모델 확대△중도 탈락 대응 NEST

3-Tier 모델 고도화△HUFs CARE 통합 지원체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반 다국어 학습 모델을 확대해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HUFs 4A+ 체계와 HUFs CARE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어가고 있다.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우리대학의 언어와 지역학의 강점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희 기자 13songhui@hufs.ac.kr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 미주 동문사회 방문... ‘외대다운 미래’ 비전 공유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 총장)이 지난 7월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워싱턴 D.C.△뉴욕을 차례로 방문하며 취임 후 첫 미주 출장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출장은 미주 지역 동문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발전기금 조성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방문지인 LA에서 강 총장은 전정구(서양어·스페인어 77) 남가주 동문회 회장이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국제전략연구원(HIIS)과 문화콘텐츠트렌드연구원(HICCT) 설립 및 AI 캠퍼스 구축 등 주요 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더불어 여러 동문들과의 개별 만남을 통해 대학의 비전과 주요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어 LA-GCEO 간담회에서 언어 및 지역학 분야의 데이터를 AI 기술과 연결해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경쟁력 ‘외대다운’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워싱턴 D.C.에서 강 총장은故 이덕선(서양어·독일어 58)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의 묘지를 참배하고 유가족과 추모 예세이집 발간 및 장학금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연향(통번역대학원 한영 89) 전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과 AI 시대 통번역 분야의 변화와 인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영대(법 88) 워싱턴 D.C.동문회 회장이 마련한 만찬에서는 여러 동문이 강 총장 방문을 환영함과 더불어 대학



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 협력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D.C.동문회가 강 총장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뉴욕에서는 조영주(사범·영교 91) 뉴욕동문회 회장이 마련한 환영 가든파티와 뉴욕-GCEO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홈커밍 대회 개최△최신 산업·문화 동향을 다루는 교

육 콘텐츠 제공 방안 등 우리대학과 GCEO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는 동문사회의 기부도 잇달았다. △강일갑(서양어·스페인어 79) 동문 1억 원△김종호(서양어·독일어 89) 동문 1억 7천만 원△뉴욕-GCEO 미화 1만 달러△최연도(서양어·독일어 59) 동문 미화 10만 달러△LA-GCEO 제17대 총원우회 미화 2만 달러 등 모교 발전을 향한 성원이 이어졌다. 곽태환(영어 57)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세희(영어 69) 남가주동문회 이사장도 기부 의사를 밝혔다. 강 총장은 현지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 설립△언어·지역학 데이터의 가치△해외 동문 네트워크와의 협력 방안△AI 시대 외국어 교육의 변화 등 우리대학의 혁신 전략을 알렸다.

이번 미주 출장은 대학의 미래 비전을 해외 동문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공감과 지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강 총장은 모교를 향한 동문들의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동문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13jungyeon@hufs.ac.kr

우리대학 조정부 국제무대에서 4위 달성



우리대학 조정부(HUFs Rowing Team)가 지난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울산 태화강 일원에서 열린 2026 울산 세계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에 참가해 활약했다. 이번 대회엔 우리대학을 비롯해 △뮌헨대학교△스베이징대학교△시드니대학교△싱가포르국립대학교△세멜바이스대학교△웁스퍼드대학교△예일대학교△케임브리지대학교△하버드대학교△MIT 등 8개국 14개 대학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을 통해 세계 각국 대학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다. 세계 각국의 대학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리대학 조 정부는 △남자포어(M 4+)△여자포어(W 4+)△혼성 에이트(Mix 8+) 종목에 출전했다. 남자 포어는 예선에서 조 1위를 차지

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결승 A에서 2분 43초 86의 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랐다. 혼성 에이트는 준결승에서 하버드 대학교와 MIT 등과 경기를 펼쳤으며 여자 포어 역시 △세멜바이스대학교△케임브리지대학교△UNIST 등과 경쟁했다. 이번 대회 출전은 이번 해 우리대학 조 정부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리대학 조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제21회 전국대학조정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대학 중 하나로서 이번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내 대학 조정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우리대학 조 정부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전국대학조정대회 2연패에 이어 국제 대회 출전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대학 조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난징 국제 대학 조정 레가타(Nanjing Regatta)’에 출전해 국제무대에서의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우리대학 GTEP사업단, 베트남 국제식품전 참가... 현지 시장 진출 지원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 총장)과 백재승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업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이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 식품전 ‘Vietfood & Beverage - ProPack 2026’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지원했다. ‘베트남 국제식품전’은 식품과 음료 및 식품 가공과 포장 분야의 기업과 바이어가 참가하는 베트남 대표 국제 식품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대학 GTEP 20기 소속 학생 요원 14명이 참가해 △소비자 시장조사△제품 홍보△현장 판매△해외 바이어 상담 등 현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다.

GTEP 요원들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우리대학의 자매대학인 호치민시기술대학교(이하 HUTECH)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HUTECH에서 지원한 통역 인력도 전시 현장에 함께 참여해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응대를 도우며 대학 간

교류를 실무 협업으로 이끌었다.

전시 현장에서는 산학협력 기업인 △모어디스알토란△오래오래△혜토의 제품 특성에 맞춘 B2B·B2C 마케팅 활동이 진행됐다. 2팀은 오래오래와 알토란을 담당해 약 40개사의 유효 바이어를 발굴하고 일본 종합상사 한와(Hanwa)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프로모션과 디지털 마케팅을 연계해 한 달간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485% 증가와 누적 조회수 약 1만 4천 회를 기록했고 준비한 B2C 제품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3팀은 모어디스와 혜토를 담당해 3일간 총 196개 제품을 판매하며 1,534만 3천 동전의 매출을 달성했고 총 44건의 B2B 상담을 진행했다. 3팀은 단백질 바 제품 체험 소비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4.73점을 얻으며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요원들은 현지 보육원을 방문해 유아용 크립과 간식을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연계 활동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대학 GTEP사업단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무역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13jungyeon@hufs.ac.kr

‘제한’을 넘어 ‘기회’로… 학점포기제의 시행으로 발돋움할 우리 대학

우리대학은 지난 학기 학점포기제를 도입했으나 제한적인 자격 요건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신청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문턱을 낮춘 새로운 학점포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된 학점포기제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

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학점포기제 현황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학점포기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대학은 지난학기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학생회의 주도 하에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전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은 지난 2024년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해 설캠 총학생회와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우리대학에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교무처와의 면담 끝에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지난 3월 우리대학 교무처는 재학생의 학업 부담 완화 및 학습 성취도 제고를 목표로 학점포기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은 지난 학기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학점포기제를 개편했다”라며 “제도의 활용을 통해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초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학점 포기 신청 자격은 유효한 성적이 있는 6학기에서 7학기까지 재학생에게만 주어졌다. 또한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해 재학 중 총 6학점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필수교과목 또는 재수강으로 성적을 취득한 과목 등은 포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성적이 영구히 삭제되거나 향후 동일 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하지만 해당 계획안이 공개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목소리와 더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취업과 졸업을 앞두고 하루 빨리 낮은 성적을 정리해야 하는 8학기 이상의 고학년과 초과학기생을 제외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8학기 재학생 A 씨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낮은 학점을 정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정작 8학기생과 초과학기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리대학은 이번 학기에 적용될 학점포기제를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대상의 확대이다. 3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재학생은 모두 신청이 가능해져 기존에 신청이 제한됐던 8학기 재학생과 초과학기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학점포기 신청 성적 제한 기준이 폐지돼 C+ 이상의 성적도 학점포기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졸업 필수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 신청도 폐지됐다. 동시에 학점포기를 했던 과목을 초수강처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점 운용의 유연성이 대폭 넓어졌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성적 하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난도 교과목 수강을 망설였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부담 없이 탐색해 볼 기회를 얻었다”라며 “자기주도적 학

습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우려되는 점 또한 존재한다.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로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대학의 대외적 성적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조기 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 과열 및 신규 수강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 정원이 제한된 인기 교양이나 전공 강의의 경우 해당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강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며 기존에 초수강을 통해 기초 지식이 있던 학생이 수업을 재수강함으로써 학점 경쟁에 불리해진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대학 학사종합지원센터는 “학점포기제의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전보다 더욱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 현황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본래의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사후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로 대외적인 성적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공정

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성적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반면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점을 포기한 과목의 성적란에 ‘W’를 표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게 불필요한 학점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점포기 이력을 남김으로써 학사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형 제도이다. 우리대학 역시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를 방지하고 외부 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이력 관리 방안을 고려해 볼 법하다.

둘째로 무분별한 조기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학사 등 학교기관에 상담을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점 포기를 신청할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과 상담을 거쳐 선수강 과목 및 졸업 학점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학점 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조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수강 학생에게는 정원 배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학점 포기 후 다시 수강하는 학생은 여석이 남는 선착순 수강신청 기간이나 정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점포기제를 이뤄갈 우리대학의 내일을 기대한다.

송송희 기자 13songhui@hufs.ac.kr

후속보도

변화를 거듭하는 사전수강신청, 학생을 위한 길은?

지난 1112호에서는 지난 학기 도입된 우리대학의 사전수강신청 방식에 대해 다뤘다. 이번 학기에는 1·2차로 진행되던 사전수강신청이 한 번으로 통합됐다. 이에 선착순 수강 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한편 △부족한 증원△학과별로 상이한 수강 제한△공지 미흡과 같이 여전히 남

아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역시 이어졌다. 사전수강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학생의 편의를 위한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수강신청 제도의 현황과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사전수강신청 제도의 현황과 한계

우리대학은 지난 학기부터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과목 수요를 미리 파악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강 신청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1차와 2차로 진행되던 사전수강신청이 하나로 통합됐다.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편리한 수강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많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편된 사전수강신청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52.6%를 차지했으며 부정적 평가는 47.4%에 달했다.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은 ‘스트레스 감소’를 가장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수강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선착순 수강 신청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사전수강신청으로 모든 과목이 수강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본 수강 신청에 답아야 할 과목이 적어지니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사전수강신청 제도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 학기에 이어서 수강인원 증원과 수강 확정에 어려움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했다. 우리대학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이하 학종지) 이번 학기 사전수강신청으로 설캠 79과목과 글캠 74개 과목에서 총 1,260명 증원이 완료됐다. 그러나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전수강신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학생들은 ‘부족한 증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사전수강신청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수강인원이 증원되지 않아 수강 확정이 된 과목이 매우 적다”라며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힘들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전수강신청 제도가 수업에 대한 수요조사 역할을 겸비하는 만큼 실제 수강인원 증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

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전수강신청 과정에서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거나 관련 공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사전수강신청 및 관심 강좌에 제한이 있는 학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공지가 부족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Language&AI 학과의 경우 이중 및 부전공생의 사전수강신청과 사전수강신청 기간 내 관심 강좌 담기가 제한됐다. 더욱이 이러한 신청 제한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학생들이 사전수강신청 당일에는 문제를 확인해 혼란이 가중됐다. 사전수강신청 과정의 제한 조건들과 미흡한 공지가 사전수강신청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대학의 사전수강신청 제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학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강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우리대학 대부분의 학과는 졸업이 시급한 막학기생에 한해 증원신청을 받기에 일각에선 증원에 대한 유연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재학생 D 씨는 “정원 외의 한두 명으로 인해 수강 보류가 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유연한 수강인원 기준을 마련한다면 제도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종지는 사전수강신청 이후의 추가적 증원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수요까지 고려해 증원 규모를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과목별 수강 수요와 강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려대학교의 경우 수강희망과목을 별도로 운영해 수강 희망 과목의 신청 인원이 수강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 20%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추천을 통해 수강을 확정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역시 1차 수강 신청에서 정원을 초과한 경우 전공과 학년을 기준으로 수강우선순위를 정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 전공과목의 경우 제1 전공자를 우선하고 이후 △복수△연계△부전공자를 후순위에 두며 동일 조건에선 △성적△직전 학기 이수학점△학년을 고려한다. 우리대학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유연한 사전수강신청 증원과 수강 확정 방식을 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강 수요를 고려한 수업 개설과 함께 추가 분반을 통해 수강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학종지에 따르면 이번 사전수강신청으로 설캠 22개와 글캠 8개 교과목에 대해 추가 분반이 개설됐다. 우리대학 경영학과와 ELLT학과처럼 이중 및 부전공생 전용 수업을 확대해 수강신청제한으로 제약이 많은 이중 및 부전공생의 수요까지 반영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의 원활한 수강과 학업 이수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강신청제한의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과별로 이중 및 부전공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수강 제한 강의의 경우 역시 계열 교차 불가와 학과 유사성 등의 사유를 명시해 학과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회가 협업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하고 학교 및 학과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 배포한다면 정보의 누락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매 학기 반복되는 학사제도인 만큼 한 번의 개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다음 학기 운영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제도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과 불신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종지 역시 앞으로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실제 운영 결과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사전수강신청 제도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다수’의 학습권을 뒤흔드는 소형학과 운영 문제 ... 남겨진 학사 과제는

우리대학은 언어와 지역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64개의 학과가 한 학년 정원 50명 이하의 중·소형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대학에 다수 개설된 소형학과는 교수진과 학생 사이 유대감이 깊고 전공 수업에서 밀도 높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강의실 내에서 일대일 맞춤형 지도나 토론형 수업을

구현하기에도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모 뒤 학생들은 많은 고충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소형학과 운영 현황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소형학과 운영 현황과 문제점

우리대학의 폐강 기준에 맞춰 학과 규모를 구분하면 △극소형(21명 이하)△소형(22~30명)△중형(31~50명)△대형(51명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 모집 단위 총 74개를 분류하면 극소형 학과 9개와 소형학과 27개로 집계된다. 우리대학 상당수의 학과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형학과와 활발한 수업 소통과 교류는 그 자체로 학과의 강점이며 나아가 우리대학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소형학과가 학과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겪거나 재학생들이 수강신청 및 성적 평가에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하다.

우선 소형학과는 전공과목이 폐강될 위기에 더 쉽게 처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대학은 입학정원에 따라 폐강 기준을 최소 수강 인원 △21명 이하 시 4명 이하△22~30명 시 5명 이하△31~50명 시 8명 이하△51명 이상 시 10명 이하로 차등 규정하며 소형학과를 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절대적 인원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강의가 폐강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학생들은 폐강을 막기 위해 수강하지 않는 과목을 임시로 신청해 인원을 채워주는 ‘유령 수강’을 부탁하기도 한다. 전 소형학과 조교 A 씨에 따르면 전공 필수 과목의 폐강을 막기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학과 교수까지 과 사무실에 유령 수강을 부탁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교수진에게도 전공 수업 폐강이 부담으로 다가옴을 보여준다. A 씨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유령 수강 과목을 우선해서 답느라 정작 개인 시간표는 뒤로 미뤄야 했다”라며 “불필요한 과목을 신청해 뒀다가 정정 기간에 실제 수강할 과목으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3명의 극소수 인원원으로 강의가 개설되는 것을 보면 분명 금지돼야 할 편법이지만 부족한 전공 강의 수와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고려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동시에 계절학기가 개설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절학기는 정규 학기에서 발생한 학업 차질을 보완해 주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형학과와 경우 구조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계절학기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30명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수강 기준으로 인해 소형학과와 계절학기가 개설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체 인원이 30명 미만인 소형학과에게 50명 이상인 중·대형학과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소형학과와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는 소수 인원 강좌를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과 사무실에 계절학기 개설을 문의했을 때 “예산 부족과 수업 시간 제한으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으로 소형학과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나 졸업 필수 강의조차 계절학기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추가 학기 부담을 야기한다. 실제로 우리대학 재학생 김도연(국제전략·한국 24) 씨는 “졸업이나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과목만큼은 인원과 관계없이 개설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한계는 성적 평가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현재 우

리대학은 교원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자율 평가나 Pass/Fail 제도를 수강 인원이 10명 이하인 강의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학과는 학년별 정원 자체가 20명에서 30명 안팎에 불과해 전공 심화 강의를 개설하면 수강 인원이 10명 안팎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에서는 학과별 규모와 수강 인원 형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모든 학과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 인원이 평가 방식의 기준선에 걸쳐 있는 강좌에서는 한두 명 차이로 자율 평가나 절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평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절대적 소수 인원원으로 인한 점수 분포 차이와 치열해진 학점 경쟁 역시 문제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의 76.5%가 ‘한두 명 차이로 절대평가 기준을 벗어난 소규모 강의에서 실력이나 노력에 비해 낮은 등급을 부여받을까 우려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소형학과 학생들은 중·대형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회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일례로 독일어교육학과와 프랑스어교육학과는 학생회비를 20만 원 한국학과와 경우 25만 원으로 학생회비가 책정되어 있다. 10만 원대의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경영학부△영어대학△행정학과 등 중대형학과와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전체 지출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학생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셈이다. 전 소형학과 학생회 경험자에 따르면 1인당 학생회비 부담이 커지는 원인은 최소 고정비용과 예산 결손 예방에 있었다. 전 소형학과 학생회 부원 C 씨는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 고정비용을 소수 인원이 나누어 부담하다 보니 1인당 학생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전 소형학과 학생회 부원 D 씨 역시 “소형학과는 행사 참가 인원이 적어 추가적인 참가비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신입생 학생회비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소형학과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본부 차원의 유연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공과목 개설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재학생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졸업 필수 강의나 교원 자격증 취득과 직결된 강의의 개설 빈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계절학기 역시 모든 학과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학과별 정원을 고려해 차등적인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조 및 재정적 문제 등으로 오프라인 강좌 개설이 여의치 않다면 보완책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소형학과를 위한 온라인 전공수업이 폭넓게 개설된다면 방향 중 △귀향△어학연수△인턴십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강

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설 기준 인원을 충족하기도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비△대면 강의실 대여비△시설 관리비 등 부대 행정 비용이 들지 않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학기 진행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 역시 소규모 학부 계절학기 개설 및 온라인 계절학기 신설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소형학과와 성적 평가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강생 규모에 맞춘 차등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일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수강 인원에 따라 등급 부여 상한선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로 인천대학교의 경우 수강생이 2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일반 강좌에는 A등급을 최대 40%까지 부여하지만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에는 A등급 상한을 50%까지 확대 적용해 소수 인원 수업의 과도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소형학과와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소수 인원원으로 운영되는 강

의에 대해 등급 배정 비율을 완화한다면 성적 산정의 형평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극소수 인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상대평가 경쟁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절대평가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기 18학점 내로 과목 성적을 A~F의 등급 대신 합격이나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S/U(Satisfactory/Unsatisfactory)’ 평가 방식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평가 기준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소형학과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일부 소형학과 내부 운영 차원에서는 학생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 1인당 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재학생들의 학과 행사 참여율을 끌어올려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 학년이 고르게 행사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형학과가 우리대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형학과 재학생들이 마주한 불편을 더 이상 소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자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복되는 교과과정 변경… 혼선 속 개선 방안은

우리대학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해 왔다. 이번 해 역시 교양 이수 체계가 개편됐으며 개별 학과 측면에서는 전공과목의 개설 학년이 변경되는 등 다양한 교과과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에게 명확한 안내와 구제가 진행되지 않아 기존 교과과정을 이수하던 재학생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교

과과정 개편으로 학생들의 수강 여건 또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재학생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교과과정 개편 현황△교과과정 개편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교과과정 개편 현황

우리대학은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지난 학기 수강 편람에 따르면 기존 5개였던 교양 영역이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사회와 문화△역사와 철학 4개 영역으로 통합됐다. 소프트웨어기초와 미래시물레이션은 각각 AI·SW데이터와 취창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인성교육과 실용외국어 영역은 폐지되고 세계시민역량 영역이 신설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25학년부터 졸업 이수학점이 기존 134학점에 126학점으로 변경되면서 각 학과의 교과과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례로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의 경우 지난 2024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전공 교과목이 28개에서 26개로 줄어들었고 중국언어문화학부의 전공 교과목도12개에서 7개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전공 과목의 학년을 조정하기도 하고 별도로 개설되던 두 과목을 통합하거나 전공 인정 교양 과목을 폐지하는 등 개별 학과 차원의 교과과정 개편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공과목의 학년을 조정하기도 하고 별도로 개설되던 두 과목을 통합하거나 전공 인정 교양과목을 폐지하는 등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칸디나비아학과의 경우 지난 2024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은 24학점이었으나 지난해 1학기에 21학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빈번한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기존 교과과정을 이수해 온 학생들은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거나 혼선을 겪기도 한다.

◆교과과정 개편의 문제점

먼저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 계획에 혼동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전 안내와 구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최근 전공과목의 개설 학년을 조정하는 등 교과과정을 변경했다. 기존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이었던 미디어연구방법론은 지난해 1학년 기초 교육과정으로 변경됐으며 3학년 전공필수 과목에 해당했던 대중문화의 이해는 이번 해에 2학년 과목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육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변경된 수강 학년에 맞춰 학년별 수강 정원이 열리면서 수강 학년 변경 이전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지는 혼선이 발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강 학년 변경 이전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해당 과목 우선 수강 신청의 기회까지 놓치게 됐다. 그러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의 전공필수 대체 과목 인정 기준을 포함해 대부분의 수업에서 구제 대상은 해당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로 한정된다. 수업의 수강 학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고 수강신청에 실패한 일반 재학생은 증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생 A 씨는 “기존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번 해에 수강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수업의 학년이 변경되며 학년별 정원이 대폭 축소돼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못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외대학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부장실 측에 문의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전공 인정 제도가 경과조치 없이 폐지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학기 프랑스어학부는 지난 2011년 2학기부터 15년간 이어온 전공 인정 교양 교과목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던 △문예사조의 이해△문학과 신화△서유럽문화의 이해△언어학의 이해 등의 교양 강의를 수강해도 이번 학기부터는 더 이상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프랑스어학부 재학생 B 씨는 “전공 인정 교양 교과목을 재수강해야 하는데 재수강을 해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막막했다”라며 “기존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대체 과목을 지정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라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어학부 측은 “학부 단위라 이미 전공 인정 교과목이 충분히 존재하고 해당 전공 인정 교양 교과목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를 추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과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수강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ELIT학과에서는 1학년 전공필수로 각 2학점 인정 과목인 고급영어문법을 고급영어문법(1)과 (2)로 나눠 개설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두 과목은 3학점 단일 과목인 고급영어문법으로 통합했고 개설 학년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됐다. 이때 재수강 해당 과목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ELIT학과 고급영어문법(1)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통합된 고급영어문법으로 재수강을 할 수 있고 고급영어문법(2)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영어의미론을 통해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미론을 이미 수강했던 학생이 고급영어문법(2)을 재수강해야 할 경우의 대체 과

목에 대한 지정과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ELIT학과 재학생 C 씨는 “이번 학기에는 고급영어문법(2)을 영어의미론으로 재수강해야 하나 이미 영어의미론을 수강한 상태라 어떤 과목으로 재수강 학점을 채워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이에 ELIT학과 측에서는 “해당 혼선을 막기 위해 고급영어문법(2)를 재수강해야 하지만 영어의미론을 이미 수강한 학생의 경우에 교과과정 중에 해당하는 몇 이론과목 등을 재수강 가능 과목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나 공지방에 공식적으로 게시돼 있거나 안내되지 않아 해당 학생이 직접 과사무실에 연락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이 외에도 학교 차원에서 졸업 이수학점이 134학점에서 126학점으로 축소되면서 일부 교양과목의 수업도 줄어들었다. 이때 졸업학점 축소가 적용되지 않는 25학번 이전 학생들은 기존 교과과정대로 134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의 수가 줄어 불만을 겪고 있다. 특히 학과에 배정된 학점이 줄어들면서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한 전공선택 과목의 선택 폭도 좁아졌다. 우리대학 재학생 D 씨는 “전공필수 과목은 고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공 선택 과목의 선택 폭까지 줄어 과목의 다양성이 감소했고 전공선택 과목 수강신청 역시 더욱 어려워져 불편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대학보에서 스칸디나비아 학과 학부장실에 전공과목 개설의 축소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학부장실 측은선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졸업학점이 축소되고 학과에 배정되는 학점이 줄어들어 학과 측에서도 교과과목을 개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반복되는 교과과정 개편으로 빚어지는 기존 학생들의 불이익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과목의 개설 학년이나 수강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강 증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연암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와 2학기 수강신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편으로 새로운 교과목이 생긴 경우 상위 학년 학생이 수강 추가 신청서를 통해 하위 학년에 개설된 미수강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경우 기존 학년 학생들의 수강 수요를 함께

파악하고 교육과정 변경으로 수강이 어려워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강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강 여건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제도나 과목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학생을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에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수강하던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결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는 글쓰기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기존 재학생의 안정적인 교과목 이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글쓰기 과목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새 교육과정의 과목을 대체 과목으로 지정해 기존 학생들의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더라도 재학생에게 일정 기간 기존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대체 기준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이 학업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되는 과목으로 인한 재수강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과목과 재수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수강한 과목이 통폐합되고 재수강 대체 과목을 이미 수강한 경우엔 재수강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목 폐지 및 통합 시 대체 과목을 사전에 명확히 지정함과 동시에 대체 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 등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사전에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체 과목을 찾아야 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과과정 개편은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더 나은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때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혼선을 겪지 않도록 기존 재학생이 변화에 적응하고 원활히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소수의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학업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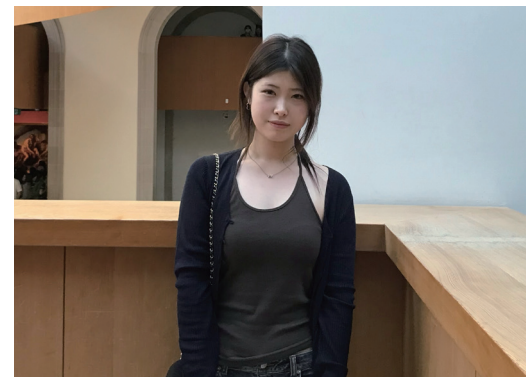
취업 준비 전 지구 반대편에서 보낸 여름방학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던 와중 문득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기들이 교환학생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1년간 휴학한 뒤였기에 해외에서 6개월을 보내면 더 뒤쳐질 것 같다는 걱정도 들었다. 그렇게 교환학생 대신 방학 동안의 어학연수를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토론토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부터 낯선 나라에 적응하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캘거리에서 경유하다 공항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릴 뻔했고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캐나다에 도착해 마주한 △도로의 풍경△스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좋은 날씨 덕분에 이곳으로 온 선택이 좋아지게 됐다.

나는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 IEP(International

English Program)를 신청했다. IEP는 오전엔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전공에 몰두하다 보니 영어에 소홀했던 터라 감을 되찾고자 지난 두 달 모두 일반영어(GEC, General English Course) 수업을 들었다. 덕분에 짧은 기간에 있고 있던 영어 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수업에서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는데 소통 가능한 언어가 영어뿐이라 영어를 더 배워야겠다는 의지도 다질 수 있었다.



것 같다. 짧았던 만큼 그곳에서의 기억이 더 생명하게 남아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지만 이번 여름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잠시 한 발 물러섰던 시간이었다.

올△오타와△퀘벡을 도는 캐나다 프렌치 여행 투어에 참여했다. 캐나다를 택한 이유 중 하나가 프랑스어와 영어를 함께 공식 언어로 쓰는 나라라는 점이었던 만큼 프랑스어권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들리는 언어에 따라 도시의 분위기와 풍경이 완전히 달라 신선한 경험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를 직접 가볼 수 있었는데 유럽과는 또 다른 결의 큰 나라를 경험하며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선 혼자 다 잘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가끔은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에 크게 실망하곤 했다. 그때마다 자책도 많이 하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다. 또한 주변인들의 취향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잘 모르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보낸 시간은 그런 걱정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주어진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어에



이지연(서양어 · 프랑스어 23)



읽어서 세계속으로

프랑스

<단두대에 대한 성찰, 독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 단두대가 사라진 자리, 여전히 남은 질문 -



<단두대에 대한 성찰, 독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 알베르 카뮈(Albert Camus)는 프랑스 출신 작가로 농업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하자 청각 장애인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자라 알제대학교(Université d'Alger) 철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신문 기자로 일했으며 한 때 공산당에 가입하고 사회 비판적 논설을 쓰다가 정치적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에 참가했

며 △니힐리즘(Nihilism)*△마르크시즘△집단 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작품들도 발표했다. 이처럼 카뮈는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작품은 1957년 프랑스의 사형 제도에 대한 카뮈의 비판으로 이뤄졌다. 카뮈는 단두대를 사용한 사형 제도가 본보기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봤다. 카뮈에 따르면 실제로 사형 제도로 인해 살인을 포기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 제도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본보기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카뮈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형 제도의 효용성은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며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의 모든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으며 동시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영향을 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형법상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교수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1997년 이후로 28년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군사정권 시대를 지나 민주화가 이뤄지는 동안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형 집행 반대 여론이 주류로 자리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집행도 하지 않을 사형 제도를 남겨놓고 있을까. 이는 생명권의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형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 프랑스의 사형 제도를 비판한 글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카뮈가 제기했던 문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가’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의 질문은 지금도 답을 요구하고 있다.

*니힐리즘(Nihilism): △도덕△신△진리처럼 인간을 지배해 온 절대적 가치나 삶의 근본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허무주의 사상.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학군사관(ROTC)?

학군사관은 대학생 중 우수인원을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과 군사지식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생활을 병행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장교가 될 수 있는 과정

1961년, 서울대 등 16개 대학에서 시작된 학군사관은 현재 전국 10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교 양성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주요 활동

1학기	학군단 입단식 및 승급식 국내외 전직지 탐방, 체육대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 교육)
여름방학	하계입영훈련 (4주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영) • 3학년 : 각계전투, 독도방, 유격, 드론교육 등 • 4학년 : 분대전투(야일조 장비 활용), 소대전투 등
2학기	국내외 전직지 탐방 무제 (학군사관후보생 축제)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 교육)
겨울방학	해외 리더십 함양 훈련 (우수 후보생) 기초군사훈련 (4주 / 학군단 입단식) • 개인위생, 각계전투, 화생방, 제식, 강계 등 전술중심교육 (3주 / 희망자 중 선발) • 전술기초, 소대공격·방어 공수교육 (3주, 특수전학교 입영 / 희망자 중 선발) • 공수지상 기초 훈련, 모험탐색, 수영, 자격 강화 학군장교 임관식 / 임관 축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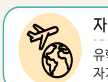
자유로운 대학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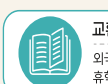
학사학위와 함께 장교로 임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 “일 플러스 원” 효과



군사교육 (훈련) 대학교 학점 인정
학기 중 군사교육과 방학 중 입영 훈련은 학점으로 인정 (대학별 상이)



자기개발을 위한 휴학
유학, 어학연수 및 인턴십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 휴학 가능



교환학생
외국 대학에서 군사학 과정 이수 시 휴학 없이 교환학생 가능



입영 훈련 일정 조정
각 학년에 해당하는 입영 훈련 참석 제한 시 입영 훈련 일정 조정 가능 (승인 시)



편입학 가능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로 편입학 가능



아르바이트 가능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아르바이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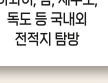
다양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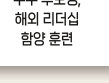
해외이, 광, 제주도, 독도 등 국내외 전직지 탐방



우수 후보생, 해외 리더십 함양 훈련



한미 ROTC 후보생 동반 훈련



초급장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 훈련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 시 2년간 약 2,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으로 안정적이고 든든한 대학생활 가능!

구분	단기복무 장교급	학군생활 지원금	교보제비	훈련비 (내국인)
3학년	1,200만원 (월시불)	360만원 (월시불 X 20개월)	163만원 (월 6,580원 X 24개월)	150만원
4학년				165만원

* 학군단 자체 장학금 지급, 기숙사 지원 및 우선 입주 등 추가 혜택 제공 (세부 혜택은 학군단별 상이)

장교 임관 시 혜택

01. 다양한 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장교 임관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 부여, 전역 시 특별채용전형 지원 가능, 채용 시 우대

02. 사회 도약 전 특권 마련 가능
군인공제회를 통해 회원퇴직급여, 복돈 수탁저축 등 우대 금융상품 가입 가능
• 연복리 적용 등 높은 이용

03. 인적 네트워크
각계각층에서 25만명의 ROTC 동문 활용
• 장·군계 약 15,700명, 경제계 약 57,000명
•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약 11,200명
• ROTC 출신 장군 약 160명

04. 군·속소 지원
독신 / 기혼 간부 숙소 지원으로 타 직업 대비 주거비용 절감

05. 장기복무 시 자기개발 기회 제공
국내외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군의·수의·치의 및 로스를 입학 가능

06. 국외 군사교육 및 외국어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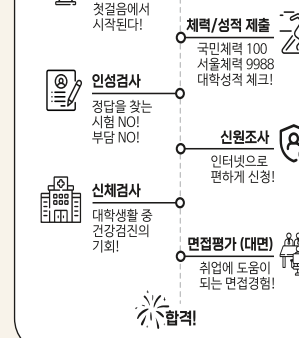
육군 ROTC 선발 안내

모집대상
• 육군 학군단 설치 대학의 남녀 1,2학년 재(南)학생
• 5년제 학과는 2, 3학년 재(南)학생

• 연령: 입영일 기준 만 20세 ~ 29세 이하
• 제대 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모집시기
• 1년에 2회 (전반기: 3~4월 / 후반기: 9~10월)

선발과정



문의전화: 육군학생군사학교 인제선발과: 043-830-6031-5

대학생활에 의미를 더하다.
육군 ROTC와 같이, 가치 있는 선택!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지원서접수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rotc.org.kr



모바일홍보

청년 주거 문제...월세는 고공 행진 중

치솟는 주거비 부담 속 대학 진학 및 직장 생활을 위해 상경을 선택한 청년 자취생들의 삶의 질이 흔들리고 있다. 원룸 임대료와 관리비가 폭등하면서 학업과 일에 집중해야 할 청년들이 심각한 주거 및 경제적 위기를 겪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 기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

통계청이 지난해 5월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9~34세 청년층은 해마다 수도권으로 순유입됐으며 수도권 이동자 중 1인 이동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업과 직장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경을 선택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 지난해 7월 15일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기업인 ‘PCP스탠다드’가 서울권 대학생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취방에서 불편을 느끼는 주요 사유로는 △곰팡이△방음 불량△채광 부족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 문제가 꼽혔다. 나아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8%는 현재 거주하는 자취방을 타인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직장 생활을 이유로 천안에서 상경한 청년 A 씨는 “자취하는 동안 곰팡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다”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월세 역시 문제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인근 보증금 1,000만 원 및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 5,000원으로 58만 1,000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 관리비 역시 7만 5,000원에서 8만 4,000원으로 10.9% 급등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대학가별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26%로 가장 가파른 월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우리대학 인근 자취촌 역시 58만 2,000원에서 67만 원으로 15.1% 상승해 △연세대(10.4%)△중앙대(9.4%)△한양대(9.2%) 등을 제치고 서울 주요 대학가 중 두 번째로 가파른 월세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월세와 관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자취를 선택한 청년들은 매달 평균 70만 원을 웃도는 고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월세가 상승하면 청년들은 지출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해야 하는 등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로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학업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월세가 올라 아르바이트를 2개로 늘렸다”라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니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은 노후 주택의 물리적 결함이다. 오래된 소형 주택은 외벽 단열재의 성능 저하와 기밀성* 부족으로 인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결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습기가 축적되며 내부 벽면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 방음 문제의 경우 주택의 저밀도 경계벽과 가벽으로 인해 발생한다. 여기에 구도심 주택촌 특유의 밀집 건축 형태가 더해져 일조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겹치면서 채광 부족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노후 주택의 기밀성 저하와 건물이 밀집한 구조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자취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 월세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는 주택존 재개발이 꼽힌다. 인구 밀집으로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오피스텔로 재개발하면서 기존의 저

렴한 주택촌이 감소했다. 일례로 흑석동의 경우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재개발로 인해 월세가 상승했다. 중앙대학교 정문 앞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 씨는 고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지역에 속한 중앙대학교 쪽문 지역이 철거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정문과 중문으로 몰려 주변 월세가 5~10만 원가량 올랐다”라고 전했다.

대주택 리모델링 전력이 필수적이다. 이때 노후 주택 정비 시에 정부가 리모델링 및 수리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유인책은 민간 소유주의 사업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실시해 기존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임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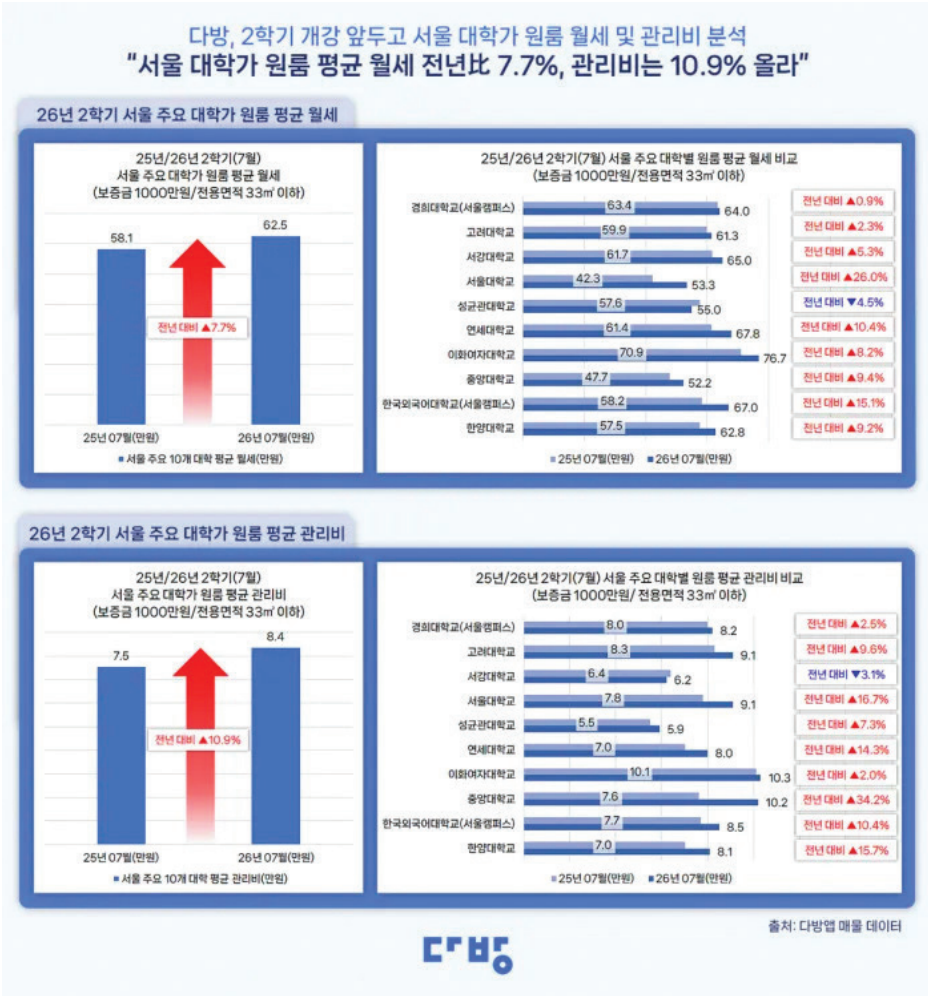
나아가 월세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장을 매입해 공공 기숙사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방안을 채택한다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확보된 양질의 주택을 청년 자취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까다로운 대상 기준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전체 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은 약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원 대상의 소득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언뜻 청년층을 향한 과도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인상됐지만 납부할 세금이 적은 청년에게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재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와 현실적인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단기간에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민간과 공공의 제도적 정비에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청년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밀성: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
**결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강화도 임대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존 임대시장에 공급되던 다세대 주택이 매매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의 칼럼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시장에서 매물이 이탈하면 청년 세입자는 더욱 열악한 조건의 타 주택을 찾아 떠돌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월세 상승과 주거 선택지 축소라는 이중고를 야기한다”라고 분석했다.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원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지난 2020년 139만 901가구에서 지난해 169만 9,910가구로 5년 새 22.2% 급증했으며 20~34세 청년 1인 가구 역시 21.3% 늘었다. 특히 대학가의 경우 △저렴한 상권 물가△편리한 대중교통망△풍부한 편의시설 등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등 외부 1인 가구의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소형 비아파트 주거 공간을 두고 입주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주거지 노후화로 발생하는 주거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임대사업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세대 임

한국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석사과정	비고
지원신청	2026. 9. 7(월) 09:00 ~ 9. 11(금) 17:00	
서류제출	2026. 9. 7(월) 09:00 ~ 9. 14(월) 16:30	우편: 9월 11일(금) 소인까지 유효
1차 시험	2026. 10. 24(토)	
1차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17:00	
2차 시험	2026. 11. 7(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20(금)	

◆ 모집학과

과 정	학과 (전공)	비고
2개언어과정 (8개 학과)	한영과 · 한불과 · 한독과 · 한노과 한서과 · 한중과 · 한일과 · 한아과	졸업시험 후 전공결정 국제회의통역 · 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통번역전공 번역전공 중 택 1
3개언어과정 (7개 학과)	한영불과 · 한영독과 · 한영노과 · 한영서과 한영중과 · 한영일과 · 한영아과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단, 일본 대학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독학자는 학위취득자에 한함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구술평가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gsit.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무 1팀 통번역대학원 교학과(국제관 2층 208호) 입학담당자 앞

임시문의 02)2173-2433, 2435~6

공공·민간 가리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그 대책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사실이 지난 2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3 일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에도 3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쿠팡 사건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현황△개인정보 유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정보 유출 현황

지난 2024년 6월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사실이 지난 2월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3일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민간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건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처럼 최근 민간이 아닌 공공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며 유출 사건 발생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 수는 △2021년 22곳△2022년 23곳△2023년 41곳△2024년 104곳△2025년 128곳으로 늘었다. 이번 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만해도 유출 사고 발생건이 164곳에 달해 이미 2021년의 7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

그렇다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발간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킹 62%(276건)△업무 과실 25%(110건)△시스템 오류 5%(24건)순으로 해킹과 업무과실이 높게 나타났다. 해킹 유형 중에서는 랜섬웨어*와 웹 셸** 등 악성코드 공격이 35%(96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등 웹 취약점 악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더불어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0대 두 명의 해킹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따릉이의 일부 서버에는 인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했다. 통상적으로 서버는 회원이 로그인하면 인증 토큰이라는 증표 및 자격증명을 발

급한다. 이를 통해 서버는 해당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실제로 정보를 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따릉이 서버는 이런 검증 과정 없이 외부에서 특정 값만 입력하면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한편 쿠팡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업무과실에 의한 사건이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외부의 공격자가 아닌 이미 퇴사한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 보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사 및 계정 관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이 퇴사하면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지향은 밝혔다.

이어서 지향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 차등부여의 부재와 제한의 느슨함도 쿠팡 측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할 의무가 있다. 쿠팡이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 범죄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이 사용자가 인증에 성공한 후 서버가 발급하는 API*****나 자원에 접근할 권한을 증명하는 임시 문자열인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기가 장기간 방치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액세스 토큰 서명키를 회사 측이 제때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담당 직원이 퇴사 이후에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지난 달 신세계인터넷넷세점에서 고객 67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고가 있다. 신세계 측은 이번 사고가 해킹이 아닌 메일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신자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조사센터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개인정보 유출은 무엇보다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접근권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퇴사자 계정이나 방치된 인증 정보로 내부 및 외부 위협자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면 네트워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 요청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체계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모델'이 필요하다. 실제로 구글은 △기△기△사용자△접근 권한 기반을 기준으로 삼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 중 하나인 '비욘드코프(BeyondCorp)'를 시행하고 있다. 구글은 약 8년에 걸쳐 사내 네트워크를 이 방식으로 재구축했으며 △싱글사인온(SSO)*****△접근 컨텍스트 관리자*****△ID 인식 프록시***** 등을 통해 통제 기준을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기기와 사용자로 옮겨 내부에 있어도 권한을 계속 재확인하도록 만든 것이 핵심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암호화 의무가 확대돼야 한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GDPR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게 △데이터 처리 목적 제한△열람 및 삭제 요구권 보장△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의무화한다. GDPR은 특정 기술적 조치를 세세하게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조직에 기술 및 조직적 제어가 모두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암호화 및 가명화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내에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GDPR처럼 암호화 대상을 촘촘히 열거하기보다 다양한 조치를 폭넓게 권장하고 암호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유출 인지 및 공시 체계 역시 정비돼야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이를 영업일 4일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

2023년 7월부터는 '8-K 아이템 1.05'라는 별도 항목을 통해 △범위△성격△시점△잠재적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72시간 신고 의무와 더불어 투자자를 향한 공시 의무까지 이중으로 부과하면 기업의 은폐 및 축소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관리의 문제다. 우리는 서명키와 암호화 설정을 소홀히 한 대가가 수천만 명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공시 의무△암호화△접근권한을 촘촘히 엮은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랜섬웨어(Ransomware): 사용자의 파일이나 시스템을 암호화하여 접근을 차단한 뒤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웹셸(Web Shell) 공격: 특정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스크립트 파일 등을 실행을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하여 관리자 권한 획득 및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인젝션 공격: 악의적인 에스큐엘(SQL)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기법.
****파라미터 변조: 웹 요청에 포함된 파라미터 값(△쿠키△폼 데이터△URL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하여 △가격△권한△인증 정보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공격 기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기능을 요청·응답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된 인터페이스.
*****싱글사인온(SSO, Single Sign-On):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시스템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증 방식.
*****접근 컨텍스트 관리자(Access Context Manager): 사용자의 △기기 상태△시간△위치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접근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관리 도구.
*****ID 인식 프록시(IDentity-Aware Proxy): 사용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확인한 뒤 접근을 중계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프록시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대법관 제청 둘러싼 갈등 격화... 청와대·대법원 정면충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전과 달리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으로 제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면담 일정에 대한 협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라며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밝혔다. 반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 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임명권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법률 개정 및 법원행정처 폐지 요구도 나오는 만큼 갈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 제주 실종사건 잇따른 허위 종결... 경찰 수사체계 허점 도마 위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잇따라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실종 수사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이하 장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통화했다는 식의 허위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월

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남성 역시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 사건 처리와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실종자 수사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 반도체가 끌어 올린 수출...경제 회복세 이어질까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달 중순 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은 5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6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8.8%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

련해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242.1% 증가했으며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각각 118.6%와 59.4% 늘어났다. 반면 승용차와 선박 수출은 각각 45.1%와 60.5% 감소해 품목별 수출 실적의 격차도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을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가는 동시에 수출 품목도 다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 캐나다, 오는 8일 700개 품목에 보복관세 확정... 미·캐나다 관세전쟁 격화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양국의 관세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 550여 개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캐나다 정부도 지난달 25일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오는 8일부터 1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상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달려 대 달려, 세울 대 세울로 맞서는 보복관세와 지원 패키지가 △기업△정△노동자△농민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비경제적이고 불공정하며 캐나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라고 비판하며 협상장을 떠난 바 있다. 반면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른 최종 타결을 거부했다며 결렬 책임을 캐나다 측에 돌리고 있다. 양국은 △자동차△에너지△철강 등에서 공급망이 깊게 얽혀 있는 만큼 관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시 시작된 친일 재산 환수, 역사적 정의는 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최근 배우 A 씨의 증조부가 과거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친일 행위자 후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 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6월 2 일 공포되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제도 역시 16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됐다. 친일

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의 재출범과 함께 오는 12 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의 △재제정 배경과 주요 변화△시행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전학선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전학선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됐던 친 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다시 제정된 배경과 최근 재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2006년 7월 13일 친일재산조사위가 설치돼 친 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 왔으나 지난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해 친일 재 산의 국가 귀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이에 기존 「친일재산귀속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친일재산조사위를 재구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하고자 합니다.

Q2. 새로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친 일 재산을 어떤 목적과 원칙에 따라 국 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나요?

친일 재산의 발굴 및 환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구현하며 순국선 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Q2-1.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판단되는 법률 요건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 재산임을 확인해 이를 국가 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재산을 △관리△소 유△처분한 조사 대상자에게 해당 결정 내용을 통지 해야 합니다. 이때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 부장관(이하 재경부 장관)에게 통지해야하며 재경부 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합니다. 지정받은 관리청은 해 당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 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친 일 재산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Q3. 환수된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후 어떻게 관리 및 활용되나요?

국가에 귀속되면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독립 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심의회에서 독립 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우선적으 로 사용됩니다.

Q4. 과거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제도와 비교할 때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실 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와 법적 의미도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권한을 모아 전담 기 구의 법적 지위를 신설했습니다. 법률 조문에 현장 조사권과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조사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을 두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친일 재산을 국 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의 처분



▲사진 출처: 뉴시스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적 절차 역시 단순화했습니다. 귀속 판정이 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국가 소유가 되도록 했고 매 각 대금은 독립 유공자 복지 특별회계로 바로 입금 되도록 자금 흐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Q5.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이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의 구현과 과거청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때문에 재산권과 충돌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 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헌법상의 정의’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실현하는 것 을 뜻합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 일 때만 보호받습니다.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모은 친일 재산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며 불법적 결과물 이므로 처음부터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범주에 들 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Q6.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은 일제강점 기에 형성된 재산 관계에 현재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소급효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친일 재산 환수에서 소급 적용이 허용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미 소급효 문제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역사적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헌법 전 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라는 국민적 공

적 한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자금 출처나 매매 기록 이 소실된 경우가 많다 보니 소유자가 정당성을 입 증하기 어렵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자 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은 재산 소유자에게 △이의 신청△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 엄격하게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환 수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 니다.

Q8. 이번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은 선의 로 친일 재산을 취득한 제삼자의 권리 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의’ 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 우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 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당 규정은 친일 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제삼자에 게 매매 또는 양도한 것을 막기 위해 선의의 제삼자 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제삼자가 친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선의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과실 여부와 실질적 유상 거래 및 금융 증빙 기준을 확인해 위장 거래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 때 과실 여부만 제삼자가 재산의 매매 또는 양도 과 정에서 등기부나 공적 기록을 통해 친일 재산임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 유 상 거래 및 금융 증빙 기준은 정상적인 시세를 치렀 는지 확인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Q9. 친일 재산 환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증의 어려움과 실제 환수 가능성을 보완해야 합니 다. 일제강점기 기록이 많이 사라져 국가가 친일 재 산임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장 매매나 명의신탁으로 숨겨진 재산은 승소하더라도 실제 환 수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및 부동산 추적망과 연 계해 판결과 더불어 실제 환수까지 확실히 이어지는 실무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등기(登記): 부동산 등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溯及效): 법률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과거의 시점 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느린 사람

나는 느린 사람이다. 남들이 쉽게 지나가는 순간에도 나는 한참을 더 머문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런 스스로가 답답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 지기도 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확신을 주던 어머니의 말씀도 종종 나를 조여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학창 시절 나는 친오빠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오빠는 여러 권의 책을 빠르게 읽어냈던 반면 나는 하나의 책을 오래 읽는 편이었다. 그래서 주변에는 책에 흥미가 없는 아이로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여러 번 읽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오래 생각하는 일을 좋아했다. 나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박히는 문장이 있다면 본인이 그 문장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글을 오래 곱씹는 나의 습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관심사가 생기면 알게 좋아하는 법을 몰랐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오래도록 궁금해하고 이해할 때까지 파고들었다. 돌아켜보면 내가 가진 느낌은 무언가를 대중 지나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느낌이 분명한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나의 속도를 맞추야 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국어 지문을 읽을 때면 늘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주변 이들과는 다른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 느낌을 극복하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한국명작 이해와 감상'이라는 교양 수업을 통해 매주 책을 읽었다. 입시를 위해 급하게 읽었던 모의고사 지문과 달리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읽는 책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줬다. 매주 책을 읽는 과정은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이었다. 불이 꺼진 기숙사 방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내려갔다. 블로그(Blog)에 책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고 조원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한 권의 책에서 출발한 생각을 확장해 나갔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읽고 기록하며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도 깊어졌다.

나 역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래 바라보는 글을 쓰고 싶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박히는 문장이 있다면 본인이 그 문장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의 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글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글을 쓰고 싶다. 그러기 위해 눈앞의 이야기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오래 고민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처럼 나는 글을 쓰고 싶어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외대학보는 경쟁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와 닮아 있다. 한 걸음 늦더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천천히 단단하게 완성되는 글은 더 의미가 깊다.

강수현 기자



[책 '산월기'를 읽고] 나는 얼마나 오만했었는가

나는 스스로를 비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대학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입시 전형을 통하는 우리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선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과시한 적은 없었으나 이때까지 나는 나의 학력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런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둔 나의 오만함을 나카지마 아쓰시가 단편소설 <산월기>를 통해 서정적이고 서늘하게 조명했다.

주인공 이정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겸손함과 거리가 먼 당나라의 서생이다. 그는 속물적인 관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인으로서 불멸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대의를 품은 채 관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명성도 생계를 위한 안정도 얻지 못한 채 초조해하다 결국 산속으로 사라진다. 훗날 감찰어사가 돼 영남으로 길을 떠나던 이정의 옛 친구 원참은 산속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기이한 호랑이와 마주치는데 그 맹수가 바로 짐승으로 변해버린 이정이었다. 이정은 풀숲 뒤에 숨어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소식과 함께 자신이 호랑이로 전락해버린 연고를 고했다. 그가 고백하길 자신을 망가뜨린 것은 소심한 자존심과 거만한 수치심이었다. 그는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부족할까 봐 스승을 찾아가 기초부터 배우기를 거부했고 남들과 섞여 시를 다듬기에는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했기에 평범한 대중 속에 묻히는 것을 멀리했다. 결국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그는 오만함과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맹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해 그의 외양마저 속마음과 어울리는 추악한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이정의 비극이 나에게 유독 뼈아프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의 모습이 나의 웅졸한 자부심과 닮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마다 가슴속에 자존심과 수치심이라는 맹수를 사육하며 살아간다. 남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도전을 피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를 쌓는다. 나 역시 그랬다. 돌아켜보면 나는 스스로 이뤄낸 아주 작은 학업적 성취에 심취해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후 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았다. 낮은 곳을 내려다보며 안주했고 높은 곳은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에게 정해지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다. 고학년에 진입하고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며 나는 나의 자부심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깨달았다. 공부를 게을리하고 약점을 보완하지 않았던 것의 대가를 그제야 실감했다. 나도 이징처럼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 자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린 스스로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자만을 털어내며 겸허하게 정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도 가슴속 깊이 놀라웠던 오만함과 두려움의 자화상을 조용히 꺼내어 마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칼럼을 마친다.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영화 '행복 목욕탕'을 보고]

불완전한 삶을 품어주는 가족의 의미

영화 '행복 목욕탕'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인물들이 모여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비록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융합한 엄마 후타바(幸野双葉)의 존재로 이들은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식구가 된다. 영화는 주인공 후타바가 말기 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후타바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딸 아즈미(幸野安澄)가 혼자 남겨질 상황에 대비해 1년 전 집을 나간 남편 카즈히로(幸野一浩)를 찾는다. 카즈히로는 가출 후 내연녀가 남기고 도망친 9살 딸 아유코(幸野鮎子)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후타바는 남편과 아유코를 모두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가족이 모여 다시 목욕탕을 운영해보지만 이들은 여전히 삐걱거린다. 아즈미는 학교 폭력을 당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아유코는 낯선 가족들 사이에서 친엄마를 기다린다. 후타바는 아즈미에게 "도망치면 안돼 맞서야 해, 네 힘으로 이겨내야 해"라며 일어설 힘을 주고 아유코 역시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보듬어 자신의 새로운 딸로 맞아준다. 타인의 아이마저 가슴으로 품어내는 후타바의 모습은 강인한 엄마의 모습과 포용력을 보여준다.

이후 후타바는 두 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기구한 가정사로 인해 목표 없이 타인의 차를 빌려 타던 히치하이커 청년 타쿠미(向拓海)를 만난다. 후타바는 그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최북단을 거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후에 여행을 마친 타쿠미는 목욕탕

일을 도우며 식구의 일원이 된다. 한편 아즈미는 여행지였던 후지산 자락의 요리 전문점에서 서빙을 하던 청각장애인 여성을 만나게 된다. 후타바는 아즈미에게 그녀가 남편의 전 부인이자 아즈미가 한살 때 떠난 생모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즈미가 생모를 만나 수화로 대화하는 장면에선 어머니로서의 후타바의 희생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수화를 할 줄 아느냐는 생모의 물음에 아즈미는 "엄마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올 테니 배워두라고 했어요"라고 수화로 말한다. 이는 훗날 딸이 생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수화를 가르친 후타바의 사랑과 깊은 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끝으로 후타바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왔음이 밝혀진다. 후타바의 두 딸 모두 생모에게 버려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슴 아팠지만 후타바가 포용력으로 그 상처를 모두 품었다는 점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영화는 진정한 행복이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영화에서 샤브샤브는 생일마다 먹는 음식으로 자주 등장한다. 여러 재료가 섞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샤브샤브처럼 결국 가족이란 완벽한 혈연이 아닐지라도 한 냄비의 샤브샤브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녹여내는 따뜻한 밥상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6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26년 2학기 외대학보 1118~1123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선착순 9월 9일(수)까지
-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 **문의**
 - 서울캠퍼스: 이나연(010-8756-2048)
 - 글로벌캠퍼스: 이하은(010-4598-6672)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한 계절 더위를 머금은 채 수확되는 열매처럼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며 캠퍼스에는 선선함이 찾아왔다. 선선함과 함께 저마다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한 학우들이 긴 방학을 끝내고 학교라는 둥지에 돌아온 모습이 반갑기만 하다. 외대학보 역시 한층 성장한 기자들과 새로운 신입 기자를 맞이하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1118호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4면에서는 소형학과와의 운영 어려움을 조명하고 있다. 소형 학과는 수업 개설부터 학과의 행사까지 모두 소수 정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원 부족이라는 벽에 자주 부딪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폐교를 막기 위해 ‘유령 수강’이라는 편법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편법이 아닌 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소형 학과의 불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됐으면 한다.

5면에서는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개편 이후에도 과목통합으로 인한 재수강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나 학년 변경으로 인한 수강신청 실패 사례는 우리대학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교육과정 때문에 시간표를 다시 계획해야 했던 주변의 이야기를 접해 마음이 더욱 무겁기만 하다. 이렇듯 잦은 개편은 학생에게 혼선을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이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이유는 개선점을 고쳐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일 것이다. 이번 개편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발전된 교육과정을 완성했으면 한다.

이어진 7면에서는 치솟는 주거비로 인한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월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대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주택کم 개발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강화가 월세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대안이 청년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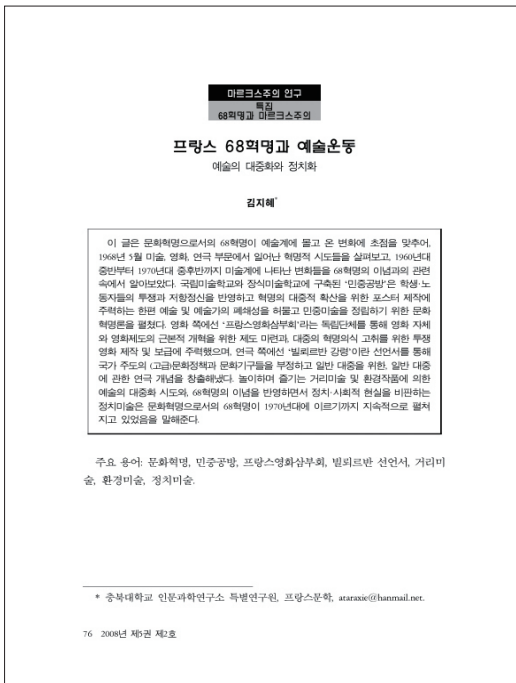
8면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이 해킹과 더불어 업무 과실에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기업들이 보안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마지막 12면에서는 여행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우리대학 노중훈 선생님의 인터뷰를 담았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가진 생각들과 낮은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터뷰 내용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여행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익숙함을 마주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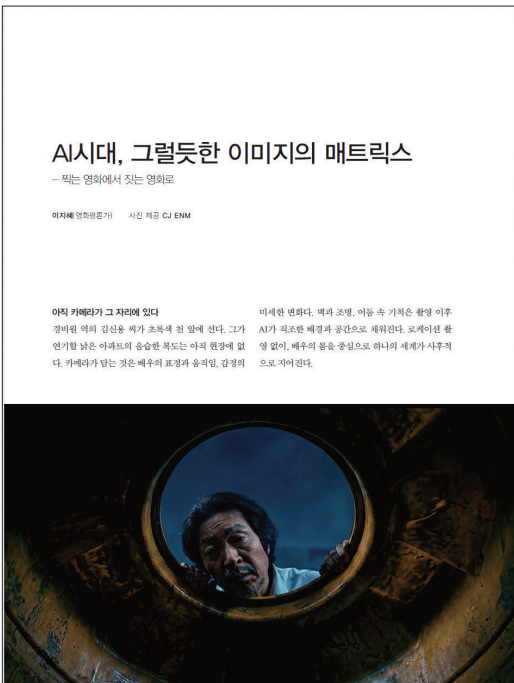
외대학보는 여러 이야기를 취재하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간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한 계절 더위를 머금은 채 가을에 수확되는 열매처럼 수고로이 달려온 우리들의 열정도 언젠가 결실을 맺길 바란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

기자들의 추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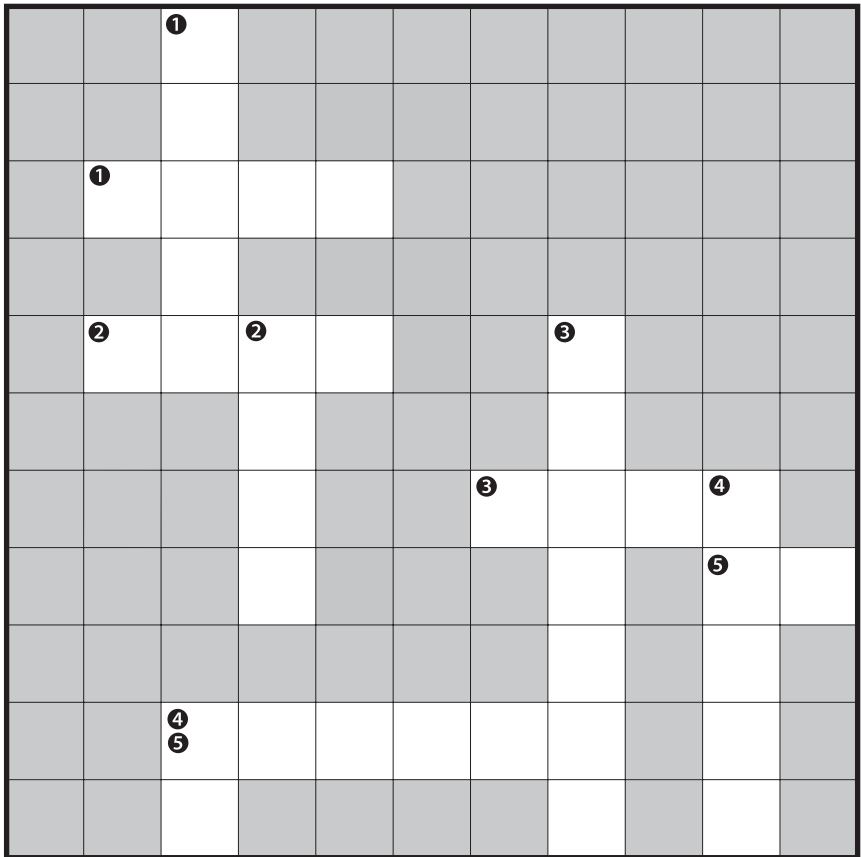


이 논문은 프랑스 68혁명을 예술과 대중문화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치적 변화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줍니다. 특히 영화와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시대, 그럴듯한 이미지의 매트릭스 - 찍는 영화에서
 짓는 영화로: 영화 '아파트' 는 시를 활용해 제작한 영
 화다. 시가 창작물에 스며드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
 선을 가지고 예술을 바라보아야 할까?

십자말풀이



가로

1. ○○○○의 활발한 수업 소통과 질문 교류는 그 자체로 학과의 감성이며 나아가 우리대학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년 차점)
2. 우리대학은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을 개편하고 있다. (5년 차점)
3. 상경을 선택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7년 차점)
4. HUSF 4A+ 체계와 HUSF CARE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맞춤형 ○○○○○○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혁신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2년 차점)
5. 이번 학기 프랑수아학부는 지난 2011년 2학기부터 15년간 이어온 전공 인정 교양 교과목 ○○○○ 폐지를 결정했다. (5년 차점)

세로

1. 일부 소회학과 학생들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평가를 받음을 지고 있다. (4면 참조)
2. 정석 구현과 ○○○○○입니다. 개조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때문에 재산권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헌법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된다. (9면 참조)
3. 미국의 ○○○○○○(SEC)는 상장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이를 영업일 4일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8면 참조)
4. 지원 제도의 시작지점과 현실적인 한계를 점명하고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은 한층 줄어든 것이다. (7면 참조)
5. 3점은 단박될 시, 제품 채움 소비자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에 4.7점을 얻으며 베트남 시장 ○○○전력 수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송도캠퍼스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대학이 송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학기 개교를 목표로,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35명과 외국인자유전공학부 65명을 모집한다. 새로운 교육 영역을 개척하고 학교의 활동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캠퍼스 확장이나 학부 신설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송도캠퍼스는 우리대학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이자, 우리대학의 정체성을 새로운 환경에서 구현하고 미래 전략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송도는 국내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바이오산업 거점이다. 오늘날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대학의 언어·지역학적 역량이 바이오산업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대학의 강점을 송도에서도 살리려면 우리만의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유망 산업의 이름을 빌려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뒤따르는 데 그친다면, 송도캠퍼스의 외연은 넓어질지 몰라도 우리대학의 정체성은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 '바이오'라는 이름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대학이 길러야 할 인재는 산업 지식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도 능숙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송도캠퍼스의 경쟁력은 우리대학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언어·지역학적 자산을 바이오 분야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접목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인자유전공학부도 우리대학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국제도시는 외국 기업과 국제기구가 들어선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공부하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제도시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송도캠퍼스는 외국인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제도시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캠퍼스의 언어·지역학적 강점과 글로벌캠퍼스의 융합교육 역량을 송도의 특성에 맞게 접목하는 일도 중요하다. 송도캠퍼스가 기존 캠퍼스의 자원과 인력을 단순히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전체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송도캠퍼스를 기존 캠퍼스와 단절시켜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각 캠퍼스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교육과 연구, 학생 교류와 행정 지원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제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은 산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되 단기적인 취업 수요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산학협력 역시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학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주거·통학 여건, 실습 공간, 진로 지원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송도캠퍼스의 비전은 공허한 수사에 머물 수 있다.

우리대학은 송도캠퍼스에 어떤 미래를 담을 것인가? 송도캠퍼스의 성패는 건물의 규모나 모집 인원의 숫자가 아니라 이 질문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답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대학이 송도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캠퍼스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만의 교육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송도캠퍼스의 개교가 우리대학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빈(영어통번역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1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백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여행을 통해 바라본 세상을 전하는

노중훈 여행작가를 만나다

노중훈(사회·미디어 92) 작가(이하 노 작가)는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여행신문 취재부 기자로 활동하며 여행과 글쓰기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01년부터 프리랜서 여행 칼럼니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사람△음식△풍경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담아왔다. 노 작가는 '할매, 밥 됩니까'와 '풍경의 안쪽' 등 여러 여행 저서를 출간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여행에서 마주한 세상을 기록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노 작가를 만나보자.



Q1.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지는 않았 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미디어 계열에 종 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신문기자나 라디오 PD가 되 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라디 오를 잘 듣지 않는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라디오가 세상 을 보는 창이자 가장 인기 있는 매체였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2. 우리대학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이자 범생이였습니다. 학생 운동이나 동아리도 해본 경험이 없고 당시 신문방송학과에서 유명했 던 보도사진부와 같은 학과 내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에도 참 여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학과 학생 대부분은 방송사나 신문 사에 들어가기 위해 언론고시를 준비했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았고 재학 시절엔 오히려 영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Q2-1. 재학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친한 친구들 서너 명에서 영화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했습니 다.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등 쉽게 보기 힘든 영화를 상영하 는 조그마한 시네마테크(Cinémathèque)도 찾아다니고 희귀 영화 비디오나 영화 관련 서적을 구해 함께 모여서 보기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납습니 다.

Q3. 여행작가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도 특정 직종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 니다. 첫 직장으로 삼성에 입사했지만 대기업 문화와 더불어 어 발령받았던 금융계열사 업무도 체질에 맞지 않아 빠르 게 그만뒀습니 다.

그러다 우연히 여행신문을 알게 됐습니 다. 여행신문은 일 반인이 아니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산업지입니다. 지 난 1999년 4월 여행신문에 입사해 2001년 9월까지 약 2년 반을 몸담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와 도시로 출장을 다녔습니 다. 퇴사 후 지난 2001년 10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여행기자 경험이 자연스럽게 여행작가의 길로 이어졌고 초창기에는 잡지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잡지와 사보*에 글과 사진을 기고하거나 인터뷰 및 예세 이류의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했으며 잡지사의 마감 작업 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행신문 기자 시절까지 합치면 어느 덧 여행을 기록해온 지 햇수로 28년째가 돼갑니 다.

Q4. 여행작가로 활동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

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66개국 약 500개 도시를 다니며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기에 하나만 꼽기는 어렵습니 다. 다만 개인적으로 작 은 마을의 나지막한 풍경과 식당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장 좋아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 다. 물론 페루의 마추픽추나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같 은 압도적인 자연도 멋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들이 소중하게 느 끼지는 것 같습니다.

Q5. 여행작가로 활동하시며 어떤 여행과 이 야기를 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작가로서의 제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외여행 작가처럼 세계 곳곳을 다니고 사진을 찍는 등 취재를 통해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반기 에는 음식여행 작가로서 훨씬 많은 활동을 하며 '폴뿌리식 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중심이 됐습니 다. 폴뿌리식당은 제가 붙인 이름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킨 작고 허름 한 식당을 말합니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의 작은 식당을 찾아 식사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 와 그 음식이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다 납니 다. 지난 20년 가까이 해온 라디오 역시 전반기에 해 외여행지를 소개하고 관광명소를 추천하는 이야기를 주 로 방송했다면 후반기에는 폴뿌리식당들을 주로 소개했 습니 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음식 칼럼니스트나 음식 작가 로 알고계 하는데 결국 폴뿌리식당을 찾는 여행을 해온 셈입니 다.

Q6. 여행작가로 활동하시며 겪은 고충이 있 다면 들려주세요.

전반기 시절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놀러 가는 여행이 아 니라 취재하러 가는 여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 었습니 다. 지자체나 관광업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신 문사나 잡지사 등의 기자들을 초대하면 이에 기자들이 조직돼 함께 팸 투어(fam tour)를 가게 됩니 다. 팸 투어는 대체로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보는 빠빠 한 일정으로 진행되다 보니 깊이 있는 취재가 어려웠습 니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모습만 보고 오니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기자들의 기사도 대부분 비슷해졌 습니 다.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습니 다.

Q7. 여행 저서를 집필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여행에 있어 무언가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저는 무엇보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들으러 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풍 경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곳을 오래 들여다봄으로써 처 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세히 보이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 행작가로 오래 일했다 해도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그 장 소를 잘 알 수는 없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 니기보다는 여행의 범위를 좁히고 천천히 머물면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이 여행 저서를 집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저서 집필뿐 아니라 △강연△라디오△유 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 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오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서 얻은 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라디오 키드(Radio Kid)였기 때문에 늘 라디오 에 대한 환상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 하는 걸 넘어 지난 11년간 제 이름을 단 라디오 프로 그램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진행했던 것은 지금도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입니 다. 너무 영광스러웠고 행복했 죠. 유튜브는 제안을 받아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맛을 평가하고 별점을 매기는 친편일률적인 식당 소개 영 상에 답답함을 느꼈고 폴뿌리식당의 본질적인 이야 기를 전하고 싶어 이를 콘텐츠로 했죠. 강연은 단행본 작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요청이 들어 오기도 해요. 제 강연은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 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은 크게 해 외여행과 국내 음식 여행으로 나뉩니 다. 유명한 장소 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테마를 준비하는데 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즉석에서 반응을 살피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준비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생각한 대로 맞아떨어질 때의 희열감도 큼니 다. 이러한 활동 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소 기록했던 메모와 취재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니 얻는 것이 많습니 다.

Q9. 바쁜 일상 속에서 여행을 온전히 즐기 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가님께서 는 여 행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행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다름'과 '같음' 이에요.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을 보며 이전까지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사 랑 사는 건 비슷하구나'라는 익숙함을 마주하기도 합 니 다. 사람들은 보통 같은 걸 보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아 보이지만 결국 다르다는 점입니 다. 그 다름 을 발견하려면 앞서 언급했던 '천천히 머물고 범위를

좁혀 깊이 보고 듣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여행의 기능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10.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라디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라디오 일 은 평생 하고 싶습니다. 여행작가로서는 폴뿌리식당 을 다룬 책 '할매, 밥 됩니까'의 2권을 빨리 쓰고 싶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가 직접 짠 일정을 토대로 여 행을 안내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짜 음 식문화와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폴뿌리식당을 소 개해주고 싶어요. △공간△역사적 의미△음식과 식 당이 만들어진 배경△음식을 만들어온 분들의 인생 까지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 지만 허름한 식당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11. 마지막으로 여행작가를 꿈꾸는 우리대 학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행 자체에 미쳐있다면 여행작가를 안 하는 게 좋다 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계의 수단이 되 면 먹고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되니 힘들어지고 싶 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 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작가로 오래 활동할 수 있었 던 이유도 여행을 직업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직 업윤리에 충실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행작가에게 중요한 덕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 다. 첫째 는 타 문화에 대한 존중입니 다. 함부로 타 문화를 폄 하하지 않고 존중하는 직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 니 다. 둘째는 글쓰기입니 다. 작가로서 남의 글을 베껴 선 안 되며 기교보단 맞춤법과 표준 표기법 같은 기본 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는 평생시의 상 식입니 다. 여행 안에는 △건축△미술△음식△음악△ 철학 등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분야에 깊은 전문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방면의 지식은 여행작가에게 큰 자산이 됩니 다. 여행작가가 수행하는 여러 기능을 잘 헤아려 이를 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 다.

*사보(社報):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이 직원이나 고객과 소통하 기 위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